

『正易』에서 본 參天兩地の 易學的 의미*

임병학**·유병헌***

I. 서론

『주역』 「계사상·하」와 「설괘」에서는 易道の 표상체계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먼저 「계사하」에서는 “易은 象이다.”¹⁾라 하고 象의 표상 방법으로 八卦가 배열된 八卦圖와 八卦가 중첩된 六爻重卦(64괘) 그리고 말씀을 메어 놓은 繫辭²⁾로 밝히고 있다. 또 「계사상」에서는 “그 數를 다하여 드디어 세상 의 象을 정하는 것이다.”³⁾라고 하여, 『주역』의 진리가 數로도 표상된다고 하였다.

「설괘」 제1장⁴⁾에서는 ‘성인이 作易을 하면서 神明의 德에 깊이 감통하여

* 이 논문은 2023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작성됨.

** 제1저자(교신저자),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 제1저자, 원광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

1) 『周易』, 「繫辭下」, 제3장, “是故 易者, 象也.”

2) 『주역』, 「계사하」, 제1장, “八卦成列, 象在其中矣. 因而重之, 爻在其中矣. 剛柔相推, 變在其中矣. 繫辭焉而命之, 動在其中矣.”

3) 『주역』, 「계사상」, 제10장, “極其數, 遂定天下之象.”

蓍草와 數의 원리를 펼치고, 陰陽의 변화에서 卦, 剛柔의 원리에서 爻를 표상하였다.’⁵⁾라 하여, 易道の 표상체계와 학문체계를 논하고 있다. 즉, 易道の 표상 체계는 蓍草와 參天兩地의 數 및 卦·爻로 드러나는 것이다. 『주역』의 학문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원리와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설괘」 제1장에서 논하고 있는 ‘參天兩地’의 數는 易道の 근원적 원리를 표상하는 數로서 깊은 易學的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參天兩地의 수는 단순한 算術的 의미를 넘어선 음양을 드러내는 것으로, 음양의 待對性·相對性·變化性·공존성을 통해 체용의 관계가 성립됨과 동시에 易道を 표상하는 것이다. 參天兩地에 관한 연구는 易道の 표상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선유들은 ‘參天兩地’의 參天과 兩地의 수에 대하여 여러 주장을 하였으나 서로 견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⁶⁾

『정역』⁷⁾은 삼천양지의 수와 그 이치를 명확하게 논하면서, 河圖·洛書와 先天·后天 및 既濟·未濟와의 관계를 폭넓게 논리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본고는 『정역』을 중심으로 삼천양지의 역철학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4) 『주역』, 「설괘」, 제1장, “昔者聖人之作易也, 幽贊於神明而生蓍, 參天兩地而倚數, 觀變於陰陽而立卦, 發揮於剛而生爻, 和順於道德而理於義, 窮理盡性, 以至於命.”

5) 唐代 孔穎達은 『周易正義』 疏에서 “이 한 절은 장차 성인이 이끌어 펼친 연유로 거듭한 뜻을 밝히려 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성인이 본래 蓍·數와 卦·爻를 지은 것을 서술하여, 天道와 人事의 妙함이 지극한 이치를 밝힌 것이다.(此一節 將明聖人引伸因重之意, 故先敘聖人本制蓍數卦爻, 備明天道人事妙極之理.)”라고 하여, 易의 표상체계와 학문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6) 주희는 『周易本義』에서 ‘生蓍’를 註釋하기를, “龜夾傳에서 말하기를 天下가 和平하고 王道를 얻으면 蓍草의 줄기가 一丈(十尺)이 되고, 무더기로 백 개가 난다.(龜夾傳曰, 天下和平王道得而蓍莢長丈其叢滿百莢)라고 하여, 蓍草占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공영달은 『주역정의』 疏에서 ‘시초를 사용하여 괘를 얻는 법을 만들었다(生用蓍求卦之法)’고 하였고, 『書書』 「易之義」에는 ‘生蓍가 ‘生占’으로 되어 있다.

7) 『正易』은 19세기 말 흥남 난산의 儒學者이자 易學者인 一夫 金匡(1826~1898)에 의해 저술된 책이다. 대한민국에서 저술된 『정역』이 세계적인 사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易學사상이 동양철학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즉, 동양학 내지 동양철학의 핵심적 문제는 『周易』에서 출발하였고, 『정역』은 『주역』을 계승하여 바른 진리, 바른 세상, 바른 사람을 논하고 있다.

參天兩地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전무한 편으로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분적으로 인용한 논문⁸⁾ 등을 참고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선유들의 문헌을 통하여 삼천양지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문제점 등을 살펴본 후, 『주역』의 「계사상·하」·「설괘」와 『정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제II장에서는 『주역』의 參天兩地에 대한 先儒들의 기존의 해석과 문제점을 논하고, 제III장에서는 『정역』에서 밝힌 三天兩地와 三地兩天을 통해 參天兩地の 數理的 의미를 고찰하고, 제IV장에서는 『정역』의 논리를 근거로 「설괘」 제I장에서 밝힌 역학의 표상체계를 논하고자 한다.

II. 參天兩地에 대한 선유들의 이해

「설괘」 제I장의 ‘參天兩地倚數’에 대하여 先儒들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먼저 공영달이 『주역정의』를 통하여 밝힌 본인의 인식은 물론 그 당시 유학자들의 사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역정의』의 注에서 韓康伯(?~?)은 “3은 奇數이고 2는 耦數(偶數)이니, 7과 9는 陽數요, 6과 8은 陰數이다.”⁹⁾라 하였고, 孔穎達(574~648)은 疏를 통하여 “倚는 세움이니, 이미 시초를 사용하여 卦를 구하였으면, 그 蓍草를 세어서 얻은 바이니, 하늘에서 奇數를 취하고 땅에서 耦數를 취하여, 7·8·9·6의 數를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參天兩地而倚數’라고 한 것이다.”¹⁰⁾

8) 柳南相(1983). 易學의 曆數聖統原理에 關한 研究.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論文集, 11-1 ; (1978). 河洛象數에 관한 연구 -正易의 象數論을 중심으로-.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5-11 ; 임병학(2017). 『주역』의 하도·낙서와 「계사상」 제9장 고찰.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83 ; (2019). 『주역』의 河圖洛書論에 근거한 卜筮와 往來·順逆의 의미와 고찰.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116 ; (2020). 『정역』의 역도 표상체계 고찰.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55.

9) 『주역정의』, 「설괘」, 제1장, 注, “參奇也, 兩耦也, 七·九陽數, 六·八陰數.”

10) 『주역정의』, 「설괘」, 제1장, 疏, “倚立也, 旣用蓍求卦, 其揲著所得, 取奇數於天, 取耦數於

라고 하여, 두 사람 모두 成數 7·8·9·6에서 취하고 있으나, 기본수인 生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어서 공영달은 “그러나 여기의 數에 의지하여 數를 낳은 것은 시초를 낳은 이후와 卦를 세우기 앞에 있으니, 시초를 사용하여 數를 얻어서 卦를 만들어 반포한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7·8·9·6은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7·9는 奇數가 되어 하늘의 數이고, 6·8은 耦數가 되어 땅의 數이며, 그러므로 하늘에서 기수를 취하고, 땅에서 우수를 취하니 7·8·9·6의 수를 세운 것”¹¹⁾이라 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설괘』에서는 參天兩地로서 하늘에서 셋(參)과 땅에서 둘(兩)을 언급하였는데, 1·2·3·4·5의 수에 대한 언급이 없이 7·9는 기수가 되어 하늘의 수가 되고 6·8은 우수로 땅의 수가 된다는 것이다. 參天은 하늘에서 셋을 취한다는 것인데, 7과 9의 수만 언급한 것은 그 설명이 명백하지 않다. 다만 參天兩地倚數는 앞 문장인 幽贊於神明而生蓍의 ‘生蓍’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고, 또 뒷 문장에서는 ‘立卦’가 나오기 때문에, 揲蓍하여 시초점을 칠 때 사용하는 數인 7·8·9·6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영달은 『주역정의』 疏에서 「설괘」 제1장을 주해하면서, “이 한 절은 장차 성인이 이끌어 펼쳐서 그로 인하여 거듭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성인이 본래 蓍·數와 卦·爻를 지은 것을 서술하여 天道와 人事의 지극히 묘한 이치를 자세히 밝힌 것이다.”¹²⁾라고 하여, 성인의 作易과 蓍草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성인을 거듭 언급하면서 天道와 人事의 지극히 묘한 이치를 밝힌 것이 단지 7·8·9·6이라고 풀이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공영달은 蓍策의 數를 단순히 占術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¹³⁾

地, 而立七·八·九·六之數, 故曰‘參天兩地而倚數’也.”

11) 『주역정의』, 「설괘」, 제1장, 疏, “然此倚數生數, 在生蓍之後立卦之前, 明用蓍得數而布以爲卦, 故以七·八·九·六當之. 七·九爲奇, 天數也, 六·八爲耦, 地數也, 故取奇於天, 取耦於地, 而立七·八·九·六之數也.”

12) 『주역정의』, 「설괘」, 제1장, 疏, “此一節 將明聖人引伸因重之意, 故先敘聖人本制蓍數卦爻, 備明天道人事妙極之理.”

이어서 공영달은 疏에서 馬融(79~166)과 王肅(195~256)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先儒 마옹과 왕숙 등은 이 글을 해석하는데, 모두 「繫辭」에 의거하여 ‘하늘의 수가 다섯이요, 땅의 수가 다섯이니, 다섯 자리가 서로 얻어 각각 합함이 있다’. ‘다섯 자리가 서로 합하고 음으로써 양을 따르는 바, 하늘은 세 가지 합함을 얻었으니 1·3·5를 이르는 것이요, 땅은 두 가지 합함을 얻었으니 2·4를 이르는 것이다.’”¹⁴⁾

馬融과 王肅은 「계사상」 제9장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而各有合’의 문장을 인용하며 하늘의 數로 1·3·5를 취하고, 땅의 數는 2·4에서 취하고 있다. 「계사상」 제9장의 ‘天地之數’節이 河圖¹⁵⁾의 이치를 담고 있으므로, 그 중에 하도의 1·2·3·4·5 生數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6·7·8·9·10 成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는 공영달이 成數를 위주로 參天兩地를 논한 것과는 서로 상반되는 견해이다.

마옹과 왕숙은 기본수인 生數를 취하고 있으나, 작용수인 成數를 배제한 것이다. 선유들은 數를 生·成數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始生數와 完成數를 말한다. 시생수란 만물이 가지고 있는 씨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이고, 완성수란 열매의 모습을 상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열매를 상징하는 성수라

13) 공영달은 「계사상」 제9장을 풀이한 『주역정의』 疏에서 ‘占筮하는 법과, 撰著하는 體를 밝혔으니(明占筮之法, 撰著之體)라 하여, 易을 撰著求卦의 방법으로 주석하고 있다. 또한 『주역』 「계사상」 제5장 ‘極數知來之謂占’이라는 문장의 疏를 통해 ‘著策의 數를 지극히 궁구하여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것이고, 점을 쳐서 길흉을 묻기 때문에 이를 일러 占이라 한다(極數知來之謂占)者 謂窮極著策之數 豫知來事, 占問吉凶 故云謂之占也)라 하여, 數의 개념을 단순히 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주역정의』, 「설괘」, 제1장, 疏, “先儒馬融·王肅等解此, 皆依繫辭云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而各有合’, 以爲‘五位相合, 以陰從陽, 天得三合, 謂一·三與五也, 地得兩合, 謂二與四也.’”

15) 주희가 『易學啟蒙』에서 「계사상」 제9장의 첫 번째 문장이 河圖의 그림을 설명한 것으로 논한 이래 ‘천지지수’절을 하도로 이해하고 있다. (임병학 (2017). 『주역』의 河圖洛書와 「계사상」 제9장 고찰.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83. 125. 각주 37 참조.)

야 비로소 작용(겉으로 들어난 역할)이 가능한 것이다.¹⁶⁾

또한 공영달은 疏에서 鄭玄(127~200)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정현이 또한 이르기를 天地의 數가 10에 갖추어져 있으니, 이에 하늘에서 3을, 땅에서 2를 취하여, 대연의 數 50에 의탁하였다. 반드시 하늘에서 셋을 취하고 땅에서 둘을 취하여, 하늘을 셋으로 덮고, 땅은 둘로서 실으니, 數를 지극히 하여 吉凶을 자세히 살피고자 함이다.”¹⁷⁾

鄭玄 역시 「계사상」 제9장의 ‘大衍之數 五十’을 인용한 후 ‘삼천양지’의 논리를 펴고 있지만, 參天兩地의 數理에 대한 해석은 없다. 다만 「계사상」 제9장의 수와 연계하여, 數의 개념을 吉凶을 헤아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주희(1130~1200)는 參天兩地而倚數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니, 둥근 것은 一에 둘레가 三이니, 三은 각각 하나의 奇이므로 하늘에서 三을 취하여 三이 되는 것이고, 네모난 것은 一에 둘레가 四이니, 四는 두 개의 偶가 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서 둘을 취하여 二가 되니, 수가 모두 이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시초를 세어 세 번 변한 끝에 그 나머지 奇가 三이면 三은 三으로 九이고, 偶가 三이면 三이 二로 六이며, 二가 둘이고 三이 하나이면 七이고, 三이 둘이고 二가 하나이면 八이다.”¹⁸⁾

주희는 天圓地方의 이치와 수리를 종합하여 參天兩地를 설명하고 있다. 하늘의 3과 땅의 2를 기본으로, 3과 2의 수리를 통해 9·6·7·8의 수가 형성

16) 송재국 (2004). 송재국 교수의 주역풀이. 서울: 예문서원, 238.

17) 『주역정의』, 「설괘」, 제1장 疏 “鄭玄亦云, 天地之數備於十, 乃三之以天, 兩之以地, 而依託大衍之數五十也, 必三之以天, 兩地以地者, 天三覆, 地二載, 窈極於數, 庶得吉凶之審也”

18) 『주역본의』, 「설괘」, 제1장 注 “天圓地方, 圓者一而圍三, 三各一奇, 故參天而爲三, 方者一而圍四, 四合二偶, 故兩地而爲二, 數皆倚此而起, 故揲著三變之末, 其餘三奇則三三而九, 三偶則三三而六, 兩二一三則爲七, 兩三一二則爲八”

되는 신술적인 의미를 논하고 있다. 그는 이 문장의 해석을 시초점을 칠 때 사용하는 9·6·7·8의 成數를 위주로 해석한 것이다.

주희의 參天兩地而倚數에 대한 설명은 자신의 말대로 그 뜻은 상세하지가 않다(未詳其義). 그는 『주역본의』의 앞부분에 「筮儀」를 지어 자세하게 시초점을 치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으며, “易은 본래 卜筮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¹⁹⁾라고 하여, 易을 占術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에서 한강백과 공영달 및 주희는 삼천양지의 수를 成數 중 6·7·8·9에서 취하고 있고, 마옹과 왕숙은 생수 1·2·3·4·5에서 취하고 있다.

특히 선유들은 대체적으로 參天兩地를 占術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주역』에서 占의 의미를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계사상」 제5장에서는 “數를 지극히 하여 來(來)을 아는 것”²⁰⁾이라 하여, 占을 정의하고 있다. 이 문장의 ‘來’를 시간적 의미인 미래로만 생각한다면, 『주역』은 占術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주역』은 天·人·地 三才之道의 형이상학적 원리를 통해 진리(易道)를 밝히고 있는 책²¹⁾으로 미래에 다가올 길흉에 대한 문제보다는, 인간의 살아가는 근거인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 뜻에 어긋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계사상」 제10장에서는 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역에는 성인지도가 넷이 있으니, 말을 쓰는 자는 그 말씀을 숭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 변화를 숭상하고, 제정된 문물제도를 쓰는 사람은 그象을 숭상하고, 卜筮를 쓰는 사람은 그 占을 숭상하나니”²²⁾

作易을 통하여 인류에게 살아갈 진리를 밝히고 있는 성인의 道 네 가지

19) 『朱子語類』, 「易二」, “易本爲卜筮而作”

20) 『주역』, 「계사상」, 제5장, “極數知來之謂占”

21) 『주역』, 「계사하」, 제10장, “易之爲書也, 廣大悉備 有天道焉, 有人道焉, 有地道焉. 兼三才而兩之, 故六, 六者非他也, 三才之道也.”

22) 『주역』, 「계사상」, 제10장, “易有聖人之道四焉, 以言者向其辭, 以動者向其變, 以制器者向其象, 以卜筮者向其占.”

중에 하나가 占을 숭상하는 것이라 하였다. 주희를 비롯한 선유들의 논리대로 占을 占術로 본다면, 과연 인류를 위한 성인의 가르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주역』에서 占을 성인의 큰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占에 대한 깊은 철학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계사상」 제2장에서는 “그러므로 군자는 거처함에 그 상을 보고 그 말씀을 완미하고, 행동함에 그 변화를 보고 그 占을 완미하니”²³⁾라고 하여, 군자의 점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성인지도를 인류에게 펼치고 실천해야 할 군자는 ‘행동함에 있어서 변화를 살피면서도 그 占을 익숙하게 가지고 놀아야 한다’라 하였다. 즉, 군자는 占의 뜻을 잘 생각하고 음미함으로써 행동할 때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위의 두 인용문을 통하여 占이란 ‘성인이 밝히고 있는 진리 중 하나이며, 성인의 뜻을 계승한 군자가 作易의 목적인 人道를 펼치면서 실천해야 할 원리’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數를 궁구하여 攄(來)을 아는 것이 占이므로, 삼천양지의 數는 단순히 길흉을 살피는 점의 용도라기보다 하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형이상학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겠다.

III. 『正易』의 三天兩地와 三地兩天

본 장에서는 『정역』에서 논한 參天兩地の 역철학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정역』의 서문에서는 “아! 성스럽구나 夫子의 성인이시여 문화의 으뜸 어른은 공자이시고, 정치의 으뜸 어른은 맹자이시니, 오호라 양 夫子시여 만고의 성인이시다.”²⁴⁾라고 하여, 선진유학을 집대성한 孔孟之道를 계승

23) 『주역』, 「계사상」, 제2장, “是故君子居則觀其象而玩其辭, 動則觀其變而玩其占.”

24) 『正易』, 「大易序」, “嗚呼聖哉, 夫子之聖乎, 文學宗長, 孔丘是也, 治政宗長, 孟軻是也, 嗚呼, 兩夫子, 萬古聖人也.”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정역』은 단순한 논리적 서술이 아니라 문장이 詩句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심오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려워 많은 오해를 받고 있지만, 『주역』을 철저히 계승하고 있다.²⁵⁾ 『정역』은 그 동안 망각되었던, 『주역』 「설괘」 제6장을 근거로 正易八卦圖를 완성하고, 河圖·洛書의 이치와 天干·地支, 卦와 二十八宿 등 상징적인 체계를 통해 우주와 자연의 이치를 논하고 있다.²⁶⁾ 먼저 『정역』 下經 「十一言」에서는 參天兩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9·7·5·3·1은 奇數이고 2·4·6·8·10은 偶數이다. 奇偶의 數는 두 개의 다섯이니, 먼저 다섯은 天道이고, 뒤의 다섯은 地德이다. 1·3·5의 차례는 하늘을 헤아린 것이고, 7·9의 차례는 땅을 셈한 것이니 三天兩地이다.”²⁷⁾

「설괘」 제1장의 參天兩地를 ‘三天兩地’라 하여, ‘석參’을 ‘석三’을 바꾸고, 구체적인 내용은 天數 1·3·5·7·9의 원리임을 밝히고 있다.

먼저 1에서 10까지의 數를 홀수(奇數)와 짝수(偶數)로 나누고, 홀수는 본체가 되는 天道를 표상하고, 짝수는 작용이 되는 地德을 표상한다고 하였다. 또 홀수 1·3·5·7·9를 다시 生數와 成數로 나누어, 1·3·5는 하늘을 헤아린 것으로 三天이고, 7·9는 땅을 헤아린 兩地임을 논하고 있다.

「계사상」 제9장의 天地之數節²⁸⁾에서 1에서 10까지의 수를 1·3·5·

25) 류남상, 임병학 (2013). 一夫 傳記와 正易哲學 대전; 도서출판 연경원. 서설.

26) 『정역』의 학문적 기틀을 만든 이정호는 “『정역』은 文王·周公·孔子가 『주역』에 묻어 두었던 三極之道를 밝힌 것으로, 易道가 大成됨을 보게 된 것이다.”(이정호 (1980). 주역정의 서술, 아세아문화사, 自序)라고 하였다. 『정역』은 先秦易學과 다른 새로운 역학이 아니라, 『주역』 「說卦」와 「繫辭」를 근거로 正易八卦圖와 360일 正曆 등을 밝혀 易道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한국역학이다.

27) 『正易』, 「十一言」, 二十二張 “九七五三奇, 二四六八偶, 奇偶之數二五, 先五天道, 後五地德, 一三五次度天, 第七九次數地, 三天兩地.”

28) 『주역』, 「계사상」, 제9장, “天一地二天三地四天五地六天七地八天九地十,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而各有合, 天數二十有五, 地數三十, 凡天地之數五十有五, 此所以成變化而行鬼神也.”

7·9의 수는 홀수(奇數)로서 天數이고, 2·4·6·8·10의 수는 짝수(偶數)로서 地數로 논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 천수는 기수로서 陽數이고, 지수는 우수로서 陰數가 되므로 天地之數는 음양의 이치를 담고 있다. 『정역』에서도 “天地의 度數는 수가 10에서 그치는 것이다.”²⁹⁾라고 하여, 1에서 10까지의 數가 天地의 뜻을 표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3·5·7·9의 다섯 수는 天道이고, 2·4·6·8·10의 다섯 수는 地德인 것에서 天道와 地德이 체용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즉, 天道와 地德에서 天和地, 道와 德이 각각 체용의 관계이듯이 奇數와 偶數가 서로 체용의 관계인 것이다. 『주역』에서는 ‘天地之道’와 ‘天地之大德’³⁰⁾을 통해 天地의 道徳을 논하고, 『설괘』 제1장에서 “道徳에 회합하고 순응하며”³¹⁾라고 하여, 天道와 地德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홀수 1·3·5·7·9에서 1·3·5는 하늘을 헤아리는 본체이기에 三天이고, 7·9는 땅을 셈한 것으로 작용이기에 兩地임을 밝히고 있다. 즉, 天數인 1·3·5·7·9를 다시 生數와 成數로 나누고 있다. 天地의 의미를 통해 生數는 작용하지 않는 본체의 수이고, 成數는 작용을 표상하는 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三天兩地의 의미 속에는 生數와 成數, 본체와 작용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는 것이다. 『정역』에서는 天數 중에서 기본수인 생수와 작용수인 성수를 구분하여, ‘三天兩地’의 이치를 밝힌 것이다.

또한 『정역』 上經 「十五一言」에서는 “先天은 三天兩地이고, 后天은 三地兩天이다.”³²⁾라고 하여, 三天兩地는 선천의 작용이고, 후천은 ‘三地兩天’이라 하여, 또 다른 수리인 三地兩天을 논하고 있다.

삼천양지가 天數 1·3·5·7·9의 이치를 논한 것이라면, 삼지양천은

29) 『正易』, 「十五一言」, 二張 “天地之度 數止乎十.”

30) 『주역』, 「雷風恒」, 단사, “天地之道 恒久而不已也”; 「계사상」, 제4장, “能彌綸天地之道”; 「계사하」, 제1장, “天地之道 貞觀者也. … 天地之大德曰生.”

31) 『주역』, 「설괘」, 제1장, “和順於道徳而理於義.”

32) 『正易』, 「十五一言」, 十四張 “先天 三天兩地 后天 三地兩天”

2·4·6·8·10 다섯 개의 地數(偶數)의 이치임을 추론할 수 있다. 三天兩地の 生數와 成數, 체용의 이치에 따라, 三地兩天은 2·4·6·8·10에서 成數 10·8·6은 三地가 되고, 生數 4·2는 兩天이 되는 것이다.

삼천양지는 1·3·5와 7·9로 1에서 9의 방향이고, 삼지양천은 10·8·6과 4·2로 10에서 2의 방향인데, 각주 27) 인용문에서는 ‘9·7·5·3·1은 奇數이고, 2·4·6·8·10은 偶數이다’라 하여, 天數는 9에서 1의 방향이고, 地數는 2에서 10의 방향으로 밝히고 있다.³³⁾ 이것은 수리가 가지고 있는 체용의 의미를 표상한 것으로, 三天兩地는 9에서 1의 작용을 바탕으로 1에서 9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위 인용문에서 三天兩地는 先天이라 하고, 三地兩天은 后天이라고 구분한 것에서 둘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다. 『정역』에서는 선천과 후천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하도와 낙서의 이치는 후천이고 선천이며, 천지의 도는 既濟卦이고 未濟卦이다. 龍圖(河圖)³⁴⁾는 未濟卦의 象이고 倒生逆成하니 선천 태극이다. 龜書(洛書)는 既濟卦의 數이고 逆生倒成하니 후천 무극이다.”³⁵⁾

先天과 后天을 통해 數理인 河圖·洛書와 『주역』의 六爻重卦인 既濟卦·未濟卦를 종합적으로 밝히고 있다. 河圖는 아직 건너지 않는 未濟의 象으로 거꾸로 생하여 逆으로 이루는데, 이는 선천 태극에 작용하는 것이다. 洛書는 이미 건넌 既濟의 數로 逆으로 생하여 거꾸로 이루는데, 이는 후천 無極

33) 1에서 9의 방향과 10에서 2의 방향은 『주역』의 順逆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땅(사람)으로 내려오는 작용은 順으로 10에서 1의 방향이고, 사람(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작용은 逆으로 1에서 10의 방향이다. 順逆의 작용은 往來로 표상되기도 한다. 順은 往, 逆은 來와 각각 짝하는 것이다.

34) 하도를 ‘龍圖’라 하고, 낙서를 ‘龜書’라고 한 것은, ‘하도는 복희씨가 세상에 정치를 베풀 때 黃河에서 나온 龍馬에 그려진 것이고, 낙서는 우임금이 치수를 할 때 洛水에서 神龜가 지고 나온 것에 유래하였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35) 『正易』, 「十五一言」, 二張, “圖書之理 后天先天, 天地之道 既濟未濟, 龍圖未濟之象而倒生逆成, 先天太極 龜書既濟之數而逆生倒成, 后天無極”

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즉, 河圖는 體五用六이기 때문에 五를 본체로 1·6 → 2·7 → 3·8 → 4·9 → 5·10의 작용을 하는데, 10에 마치기 때문에서 洛書로 넘어가는 것이다. 또 洛書는 體十用九이기 때문에 다시 十을 본체로 9(1) → 8(2) → 7(3) → 6(4) → 5의 작용으로 하는데, 五에서 다시 하도의 體五用六이 시작되는 것이다.³⁶⁾ 하도의 倒生逆成 작용은 낙서에 이르고, 낙서의 逆生倒成 작용은 河圖에 이르기 때문에 하도는 선천 낙서로 작용하고, 낙서는 후천 하도로 작용하는 것이다.³⁷⁾ 따라서 河圖는 后天인데 先天으로 작용하고, 洛書는 先天인데 后天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정역』 「十五一言」에서는 “후천은 선천에 政事하니 水火이고, 선천은 후천에 政事하니 火水이다.”³⁸⁾라고 하여, 후천은 선천인 낙서에 政事하여 水火既濟를 이루고, 낙서인 선천은 후천인 하도에 政事하여 火水未濟를 이룬다고 하여, 위의 논증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十五一言」에서는 “선천이면서 후천이오, 기제이면서 미제이다. …… 후천이면서 선천이오, 미제이면서 기제이다.”³⁹⁾라고 하여, 선천과 후천, 기제와 미제가 서로 體用的 관계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하도와 낙서는 서로 체용의 관계로, 하나이면서 둘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역』의 이와 같은 논리는 『주역』에서 밝히고 있는 ‘마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늘의 운행 원리’를⁴⁰⁾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生하고 生하는 것이 易’⁴¹⁾이라는 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易道에 충실한 논리적 전개라 할 수 있다.

36) 임병학 (2017). 앞의 논문. 150.

37) 하도는 미제의 象으로 倒生逆成하여 선천태극을 이룬다고 하였으니 선천인 낙서에 이르는 것이고, 낙서는 기제의 數로 逆生倒成하여 후천태극을 이룬다고 하였으니 후천인 하도에 이룬다는 것이다.

38) 『正易』, 「十五一言」, 四張 “后天, 政於先天, 水火. 先天, 政於后天, 火水.”

39) 『正易』, 「十五一言」, 三張 “先天而后天, 既濟而未濟. …… 后天而先天, 未濟而既濟.”

40) 『주역』, 「山風蠱」, 彖辭 “終始有始, 天行也.”

41) 『주역』, 「계사상」, 제5장, “生生之謂易.”

이상에서 선천인 三天兩地는 낙서의 數이고, 후천인 三地兩天은 河圖의 수임을 알 수 있다.

參天兩地和 洛書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洛書⁴²⁾는 十을 근거로 하는 體十用九의 작용으로 음양이 분리된 9·1(太陽), 8·2(小陰), 7·3(小陽), 6·4(太陰)의 數로 전개되는 것이다. 즉, 홀수는 홀수, 짝수는 짝수를 만나 음양이 결합되기 이전의 작용인 天道の 四象⁴³⁾을 위주로 밝히고 있다.⁴⁴⁾

三天兩地는 음양이 분리된 天數 1·3·5·7·9 다섯 개의 奇數에서 三天은 생수인 1·3·5이고, 兩地는 성수인 7·9는 낙서와 같은 논리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낙서의 수는 9數까지 표상되는데 삼천양지의 수 역시 天數 1·3·5·7·9의 9에서 끝나게 되므로 낙서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三地兩天和 河圖의 관계를 고찰하면, 첫 번째로 河圖⁴⁵⁾는 五를 근거로 體五用六의 작용에 따라 1·6(水), 2·7(火), 3·8(木), 4·9(金), 5·10(土)의 홀수와 짝수가 짝을 이루고 있다. 즉, 음양이 合德된 數(짝수)로 五行을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

三地兩天은 成數인 6·8·10의 三地和 生數인 2·4의 兩天이 모두 地數(偶數)로서 형성되는데, 이는 음양이 合德된 것을 의미하므로 하도와 부합

42) 洛書에서 강 이름 洛은 물 ㄷ과 각각 곱으로, 하늘의 진리가 각각 분리되어 전개되는 의미이다.(임병학 (2022). 주역마음학① 한자, 주역으로 풀다2. 서울: 도서출판 中道. 21.)

43) 四象은 네 가지 象으로 하늘이 드러나는 마디이다. 卦象으로는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이고, 『중천건』 卦辭에서는 元·亨·利·貞이라 하였다. 또 전통적으로는 太陽·太陰·少陽·少陰이라 하고, 朱熹는 老陽·老陰·少陽·少陰이라 하였고, 이제마는 事·心·身·物이라 하였다.

44) 河圖는 體五用六의 작용에 의해 1·6, 2·7, 3·8, 4·9, 5·10의 음양이 合德된 數(짝수)로 현상화된 인격적 세계인 五行을 표상하고 있다. 參地는 짝수 중에서 成數인 6·8·10, 兩天은 짝수 중에서 生數인 2·4가 된다. 洛書는 體十用九의 작용으로 음양이 분리된 1·9(太陽), 2·8(小陰), 3·7(小陽), 4·6(太陰)의 數로 전개되어 天道の 四象작용을 위주로 표상하고 있다. 參天은 홀수 중에서 生數인 1·3·5, 兩地는 홀수 중에서 成數인 7·9가 된다. 따라서 ‘生著’는 河圖가 되고, ‘參天兩地奇數’는 낙서의 원리가 된다. (유병현 (2020). 『周易』 「說卦」의 構造와 易哲學의 研究.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6.)

45) 河圖에서 강 이름 河는 물 ㄷ와 옳을 可로, 하늘의 작용이 합해지는 의미이다.(임병학 (2022). 앞의 책. 20.)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도의 수는 10數까지 표상되는데 삼지양천의 수역시 지수 2·4·6·8·10의 10에서 끝나게 되므로 河圖와 같은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三天兩地는 洛書로서 體十用九의 원리에 의하여 天道를 중심으로 음양이 합해지기 이전의 四象을 위주로 밝히고 있는 先天의 세계이기에, 天數(陽數·奇數) 1·3·5·7·9에서 1·3·5는 삼천의 수이고 7·9는 양지의 수인 것이다.

三地兩天은 河圖로서 體五用六의 원리에 의하여 음양이 합덕되어 전개되는 五行⁴⁶⁾을 위주로 밝히고 있는 后天의 세계를 논한 것이다. 地數(陰數·偶數) 2·4·6·8·10에서 6·8·10을 三地의 수이고 2·4를 兩天의 數인 것이다. 따라서 삼천양지와 삼지양천은 하도·낙서 및 선천·후천의 원리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이다.

『정역』은 「설괘」 제1장의 ‘參天兩地’를 三天兩地和 더불어 三地兩天을 제시함을 물론 하도·낙서 및 선천·후천과의 관계를 밝히고, 一陰一陽하는 易道の 논리로 하나이면서 둘로서 서로 작용하는 체용의 관계임을 밝힌 것이다.

IV. 「說卦」 제1장의 參天兩地和 易道 표상체계

본 장에서는 參天兩地가 洛書원리를 표상하는 수리임을 근거로 「설괘」 제1장에서 밝히고 있는 역도의 표상체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주역』 「설괘」 제1장에서는 성인이 옛날에 作易을 하면서 神明의 德을 깊이 자각하여 蓍草와 數(參天兩地)로 드러내고, 또 陰陽의 변화에서 卦와, 剛柔의 원리에서 爻를 표상하였음을 밝히고 있다.⁴⁷⁾ 따라서 역도를 표상하는

46) 五行은 五가 行하는 것으로, 行은 陰陽이 합덕되어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書經』 「홍범」에서 밝힌 水·火·木·金·土 五行은 다섯 가지 대상 사물이 아니라 물질의 속성 내지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즉, 水는 潤과 下, 火는 炎과 上, 木은 曲과 直, 金은 從과 革, 土는 稼와 穡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五行은 水氣·火氣·木氣·金氣·土氣로 음양작용하는 것이다. (임병학 (2021). 「洪範」 五行의 본질적 의미. (사)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150. 152.)

방법 중의 하나인 삼천양지를 고찰하려면, 하늘의 본성인 신명을 표상하는 蓍草·數(參天兩地)와 그 신명을 드러내는 神物인 하도·낙서와의 연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먼저 「계사상」에서는 “이로써 천도를 밝게 하여 백성의 연고를 살피며, 이에 신물을 일으켜 백성들의 쓰임에 앞서서 사용하니, 성인이 이것으로써(神物) 가지런히 하고 경계하여, 그 德을 神明하게 하는 것이다.”⁴⁸⁾라고 하여, 神明은 神物로 드러남을 밝히고 있다. 신명을 근원적인 德의 세계로 말한다면, 그 신명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신물인 것이다.

「계사상」에서는 “하늘이 神物을 내시어 성인이 그것을 본받고, …… 성인이 그것을 형상하여 河水에서 그림이 나오고, 洛水에서 글이 나오며, 성인이 법받았다.”⁴⁹⁾라고 하여, 신물이 하도·낙서임을 밝히고 있다. 즉, 하늘이 낸 神物은 河圖와 洛書이며, 이를 통하여 성인이 易의 표상 방법으로 법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설괘」 제1장에서 신명을 드러내는 蓍와 數(參天兩地)는 신물이며 곧, 하도와 낙서인 것이다.

또 「계사상」 제11장에서는 “시초의 德은 등글어 신묘한 것이며, …… 깊은 곳을 탐색하고 은미한 것을 찾으며, 깊은 것을 찾아내고 근원에 이르러, 천하의 길흉을 정하며, 천하의 힘쓰는 것을 이루는 것은 蓍龜보다 큰 것이 없다.”⁵⁰⁾라고 하여, 시초를 德을 갖춘 인격적인 것으로 논하고 있다. 또한 蓍·龜를 단순히 占의 수단으로 이해하기보다는, 天道를 펼치는 중요한 방법으로 천명하고 있다.

주희는 『역학계몽』에서 “伏羲가 하늘의 뜻을 이어 임금이 되어 河圖를

47) 『주역』, 「설괘」, 제1장, “昔者聖人之作易也, 幽贊於神明而生蓍, 參天兩地而倚數, 觀變於陰陽而立卦, 發揮於剛柔而生爻, 和順於道德而理於義, 窮理盡性, 以至於命.”

48) 『주역』, 「계사상」, 제11장, “是以, 明於天之道而察於民之故, 是興神物, 以前民用, 聖人以此齋戒, 以神明其德夫.”

49) 『주역』, 「계사상」, 제11장, “是故, 天生神物, 聖人則之, …… 聖人象之, 河出圖洛出書, 聖人則之.”

50) 『주역』, 「계사상」, 제11장, “是故蓍之德圓而神, …… 探賈索隱, 鈎深致遠, 以定天下之吉凶, 成天下之亹亹者, 莫大乎蓍龜.”

받아 그리니 八卦이다. 禹가 홍수를 다스릴 때 洛書를 받아 이를 본떠 펼치니 이것이 九疇이다. 하도와 낙서는 서로가 經과 緯가 되고, 팔괘와 아홉 개의 문장은 안과 밖이 된다.”⁵¹⁾라고 하여, 劉欽의 말을 빌려서 하도와 낙서의 연원과 이치를 논하고 있다.

다음으로 數(參天兩地)가 낙서임을 고찰하자면, 먼저 占과 數, 그리고 卜筮·龜蓍와의 연관성을 고찰해야 한다. 앞의 II장에서 ‘占이란 數를 지극히 하여 欸(來)을 아는 것’이고, ‘卜筮를 쓰는 사람은 그 占을 숭상한다’라고 하여, 성인지도 네 가지 중 하나임을 고찰하였다. 占이란 數를 통하여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며, 그 방법으로 卜筮를 쓰는 것이다. 따라서 數는 성인지도를 드러내는 占의 방법인 卜筮와 부합되는 것이다.

蓍와 더불어 인용되는 龜(거북)는 卜占에 쓰이는 동물로 인식하고 있으나,⁵²⁾ 주희가 공안국의 말을 빌려 거북을 낙서로 말한 이후 많은 학자들은 낙서로 인식하고 있다.⁵³⁾ 즉, 卜은 거북을 통하여 드러나는 낙서⁵⁴⁾를 말하는 것이고, 筮는 시초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도를 말하는 것이다.

『주역』에서 卜·筮는 龜·蓍를 통해 표상되는 占이며, 占은 數를 지극히 하여 欸(來)을 아는 것이니, 수리로 역도를 표상하는 하도와 낙서를 헤아리는 것이 占인 것이다.⁵⁵⁾ 數는 그 당시 선유들의 인식처럼 길흉을 헤아리는 占의

51) 주희, 『易學啓蒙』, 本圖書第一, “劉欽云, 伏羲氏繼天而王 受河圖而畫之 八卦是也, 禹治洪水 法而陣之 九疇是也. 河圖洛書 相爲經緯, 八卦九章 相爲表裏.”

52) 程伊川은 『易傳』에서 ‘거북(龜)’에 대하여 “거북은 길흉을 점치고 시비를 분별하는 물건이니 지극히 옳아서 거북점도 어길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龜者 占吉凶 辨是非之物 言其至是 龜不能違也)”라고 하여, 거북을 점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53) 주희, 『易學啓蒙』, 「本圖書第一」, “孔安國云, 河圖者 伏羲氏王天下, 龍馬出河遂則其文, 以畫八卦. 洛書者, 禹治水時, 神龜負文而列於背, 有數至九, 禹遂因而第之, 以成九類.”

54) 주희는 『역학계몽』에서 공안국의 말을 인용하여 “洛書는 禹가 治水할 때, 신명스런 거북이 그 등에 나열하여 文彩를 지고 나왔는데, 그 數가 아홉에 이르므로, 禹가 이를 따라 순서를 정하여, 아홉 개의 무리로 이룬 것이다.(孔安國云 …… 洛書者 禹治水時, 神龜負文而列於背, 有數至九, 禹遂因而第之, 以成九類.)”라고 하였는데, 공안국이 낙서와 ‘龜’를 연관시켜 언급한 후 많은 학자들은 거북을 낙서로 논하고 있다.

55) 임병학 (2019). 『주역』의 河圖洛書論에 근거한 卜筮와 往來·順逆의 의미와 고찰.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116. 271.

수단이 아니라, 하도·낙서의 수리를 통하여 성인지도를 펼치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北宋의 劉牧(1011~1064)은 『易數鉤隱圖』에서 “무릇 卦라는 것은 하늘이 스스로 자연의 象을 드리운 것이다. 聖인이 비로소 河圖·洛書에서 그것을 얻어, 드디어 天地 奇偶의 數를 살펴 이를 따라 그것을 그려 곧 八卦를 이루니, 마음 가는 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 數를 그린 것이다.”⁵⁶⁾라고 하여, 하도·낙서의 수는 역도를 표상함을 밝히고 있다.

‘幽贊於神明而生蓍 參天兩地倚數’의 문장에서 시초는 蓍草의 의미보다, 신명의 덕을 자각하여 易道를 표상하는 방법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蓍’와 ‘數’는 하도와 낙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성인이 자각한 天地의 本性인 신명을 하도와 낙서로 표상하는 것이다.⁵⁷⁾

성인이 神명의 德을 자각하여 표상한 蓍草와 數는 바로 神物인 河圖와 洛書이며, 『주역』에서 卜筮는 龜蓍를 통해 표상되는 占이며, 占은 數를 지극히 하여 欸(來)을 아는 것이니, 數理로 易道를 표상하는 하도와 낙서를 헤아리는 것이 占인 것이다. 즉, 占의 방법인 卜은 거북(龜)을 통해 상징되는 洛書를 말하는 것이고, 筮는 시초(蓍)를 통해 상징되는 河圖를 말한 것이다.

이상에서 「설괘」 제1장에서 밝히고 있는 ‘蓍’는 筮의 방법으로 이용된 것으로 河圖이고, ‘數’(參天兩地)는 龜가 卜의 방법으로 이용된 것으로 洛書로서, 천지의 道인 神명의 德을 표상하고 드러내는 神物임을 고찰하였다. 數(參天兩地)는 성인지도를 드러내는 占의 방법인 卜筮와 부합하는데, 數에는 卜筮 즉, 河圖·洛書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따라서 參天兩地는 하도와 낙서로써 표상되는 易道의 이치를 담고 있기에, 『정역』에서는 數(參天兩地)를 河圖·洛書로 정확하게 밝힌 것이다. 『정

56) 劉牧, 『易數鉤隱圖』, 「地四右生天九第八」, “夫卦者 天垂自然之象也, 聖人始得之于河圖 洛書, 遂觀天地奇偶之數, 從而畫之 是成八卦, 則非率意以畫其數也.”

57) 柳南相 (1983). 易學的 曆數聖統原理에 關한 研究.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論文集, 11-1. 133.

역』에서 三天兩地를 洛書로, 三地兩天을 河圖로 논한 것은, 『주역』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數(參天兩地)에는 卜筮 즉, 河圖·洛書의 원리가 담겨 있다’라는 논리와 일치하는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正易』의 입장에서 『주역』 「설괘」 제1장에서 논하는 ‘參天兩地’의 역학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先儒들은 ‘參天兩地’의 參天과 兩地의 수에 대하여 여러 주장을 하였으나 서로 견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삼천양지의 의미를 파악할 문헌적 고증이 쉽지도 않았지만, 그 당시 역에 대한 선유들의 인식은 占術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正易』에서는 參天兩地를 三天兩地라 하고, 三天兩地와 三地兩天을 밝히고 있다. 三天兩地는 「계사상」 제9장의 天地之數節에서 논하고 있는 음양이 분리된 天數 1·3·5·7·9 다섯 개의 奇數에서, 三天은 生數인 1·3·5를 의미하고 兩地는 成數인 7·9를 의미하는 것이다.

三地兩天은 음양이 합덕된 2·4·6·8·10 다섯 개의 地數(偶數) 중에서, 三地는 成數인 6·8·10을 의미하고 兩天은 陰數이긴 하나 生數로서 2·4를 의미하는 것이다. 1에서 10까지 수에서 생수와 성수를 같이 밝히면서 三天兩地·三地兩天을 논하고 있다.

또한 『정역』의 參天兩地는 天數를 말한 것으로 天道를 중심으로 음양이 합해지기 전의 四象을 위주로 밝히고 있는 낙서와 연계시키고 있다. 三地兩天은 地數를 말한 것으로 人道(地道)를 중심으로 음양이 합덕되어 전개되는 五行을 위주로 밝히고 있는 하도와 연계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參天兩地를 밝힌 「설괘」 제1장에서 易道의 표상체계를 논하였다. 「설괘」 제1장의 蓍와 參天兩地는 각각 河圖와 洛書를 말하는 것이며, 卦

와 짓 그리고 말씀을 통해 易道를 표상하고 있다.

『주역』은 한 글자 속에 무한한 역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계사상」 제12 장에서는 ‘글은 말을 모두 전하지 못하며, 말을 그 뜻을 모두 담지 못하는 것이다’⁵⁸⁾고 하였다. 『주역』의 글 속에서 담고 있는 말의 심오한 뜻을 탐구하는 것은 후학들의 과제이다. 『정역』은 先儒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三天兩地를, 三地兩天과 더불어 河圖·洛書 및 先天·后天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면서 역학의 본래적 지평을 열어준 것이다.

【주제어】 『주역』, 『정역』, 參天兩地, 三天兩地, 三地兩天, 河圖洛書

58) 『주역』, 「계사상」, 제12장, “子曰, 書不盡言, 言不盡意.”

[참고문헌]

- 金恒(1966). 正易. 대전: 正經學會.
- 류남상(2010). 周·正易經合編 대전: 도서출판 연경원.
- 이정호(1980). 주역정의. 서울: 아세아문화사.
- 송재국(2004). 송재국 교수의 주역풀이. 서울: 예문서원.
- 임병학(2022). 주역마음학① 한자, 주역으로 풀다2. 서울: 도서출판 中道.
- 柳南相(1984). 易學의 曆數聖統原理에 관한 연구.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論文集, 11(1), 125-141.
- _____(1978). 河洛象數에 관한 연구 -正易의 象數論을 중심으로-.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5(11), 149-161.
- 유병현(2020). 『周易』 「說卦」의 構造와 易哲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 임병학(2017). 『주역』의 하도·낙서와 「계사상」 제9장 고찰.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83, 117-139.
- _____(2019). 『주역』의 河圖洛書論에 근거한 卜筮와 往來·順逆의 의미와 고찰.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116, 269-294.
- _____(2020). 『正易』의 역도 표상체계 고찰.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55, 463-495.
- _____(2021). 「洪範」 五行의 본질적 의미. (사)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150, 127-158.
- 편집부(1997). 原本集註周易. 서울: 명문당.
- 孔穎達. 周易正義. 북경: 북경대학출판부.
- 朱熹. 周易本義. 서울: 명문당.
- 劉牧. 易數鉤深圖. 대만: 中和堂.
- 朱熹. 朱子語類. 서울: 광성문화사.
- 朱熹. 易學啓蒙. 서울: 광성문화사.

[국문초록]

본 논문은 『正易』의 입장에서 『주역』 「설괘」 제1장에서 밝힌 ‘參天兩地’의 역학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先儒들은 ‘參天兩地’의 參天과 兩地の 數에 대하여 여러 주장을 하였으나 서로 견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삼천양지의 의미를 파악할 문헌적 고증이 쉽지도 않았지만, 그 당시 易에 대한 선유들의 인식은 占術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정역』에서는 參天兩地를 ‘三天兩地’라 하여, 1·3·5·7·9 奇數 중 生數인 1·3·5를 三天이라 하고, 成數인 7·9를 兩地라 정의하였다. 天數를 생수와 성수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天道의 四象을 위주로 음양이 분리되어 작용하는 洛書의 이치를 담고 있는 數이다.

또 三天兩地와 함께 ‘三地兩天’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2·4·6·8·10 偶數 중 成數인 6·8·10을 三地라 하고, 生數인 2·4를 兩天이라 정의하였다. 즉, 地數도 생수와 성수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음양이 습德된 數(짝수)로 五行을 위주로 전개되고 있는 河圖의 이치를 담고 있는 數이다.

또한 『정역』은 三天兩地·三地兩天과 河圖·洛書, 先天·后天 및 既濟·未濟와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하도는 후천이고 낙서는 선천이며, 천지의 이치는 既濟와 未濟임을 밝히고 있다. 『정역』의 이와 같은 논리들은 『주역』에서 밝히고 있는 ‘마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늘의 운행 원리’를 증명하는 것이다.

『정역』의 三天兩地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역』 「설괘」 제1장에서 밝히고 있는 易道の 표상체계와 학문체계를 논하고 있다. 易道の 표상체계는 數로써 구성된 하도·낙서, 卦로 구성된 八卦와 六爻重卦로 정의하고 있다. 또 道德에 화합하고 순종하며, 窮理盡性을 하는 것이 作易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Philosophical Meaning of SamchunYangji in *Zhengyi*

Lim, Byeong-Hak (Wonkwang University)

Yu, Byung-Hun (Wonkwang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the epidemiological meaning of “SamchunYangJi(Three Heavens and Two Earths)”, which is discussed in Chapter 1 of *I-Ching* “SeolGwae”, focusing on *Zhengyi*. The pre-Confucian scholars made various claims about the number of heavens and earths in “SamchunYangJi”, but not only do they have different opinions, but they also fail to provide an accurate basis for this. This is because it was not easy to do historical research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amchunYangji”, but at that time, the pre-Confucian scholars' perception of the station was dominated by the idea of divination.

In *Zhengyi*, SamchunYangji is called “SamchunYangji(三天兩地)”, and $1 \cdot 3 \cdot 5$ is taken as the number of three heavens in the basic number of birth numbers among $1 \cdot 3 \cdot 5 \cdot 7 \cdot 9$. In the number of achievements, $7 \cdot 9$ is taken as the two number. In other words, it is clearly presented as a basic number and achievement number, among the heavenly number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Luoshu(洛書), which mainly reveals the four signs of the way of heaven, the action before the combination of yin and yang.

“SamjiYangchun(Three Earths and Two Heavens)” is revealed along with SamchunYangji. This takes $6 \cdot 8 \cdot 10$ as the number of the three lands in the number of achievements among the number of $2 \cdot 4 \cdot 6 \cdot 8 \cdot 10$, and takes $2 \cdot 4$ as the number of dual heavens in the basic numbers. In other words, it is presented as a basic number and achievement number among the earthly numbers, and it can be seen that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Hetu(河圖), which is developed mainly on the five elements, the personal world that has been developed as a number(even number) in which yin and yang are united.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SamchunYangji of *Zhengyi*, we reinterpreted the academic system of *I-Ching* revealed in Chapter 1 of *I-Ching* “Seolgwae”. Chapter 1

discusses the symbol system of the moral doctrine of changes and academic system. It defines Hetu-Luoshu as composed of numbers and Gwae(trigram) in a symbol system of the moral doctrine of changes.

【Keywords】 *I-Ching, Zhengyi, SamchunYangji(參天兩地), SamchunYangji(三天兩地), SamjiYangchun, Hetu, Luoshu.*

논문투고일: 2023년 03월 19일 / 논문심사일: 2023년 04월 11일 / 게재확정일: 2023년 04월 19일

【저자연락처】 limph5159@naver.com